큰스님 수행한담

“행복 기대할 수 없어요”

◇도암스님(맨 오른쪽)이 19살이던 1939년, 은사인 박대륜스님을 모시고 선암사를 다녀오는 모습.

“내가 먼저 남을 공손히 대하면 상대방도 예절을 갖춥니다 예의바른 사회가 잘사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언제 증오로 돌변할 지 모릅니다. 또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도저히 그럴수 없다고 하는 차별심이 들어있는 것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어떤 인연에 좇아 생겨났을 때 또는 자기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에서 설정되었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무한의 힘으로 솟아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고 한 차원 높은 형태의 것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자비는 바로 이와같은 모습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구부러지지 않은 마음이고 모든 사물의 근본을 비뚤게 생각하지 않는 바른 마음입니다. 둘째는 깊은 마음(深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물의 근본이 참되고 한결같음을 깊이 인식하고 그러함을 더욱 빛나게 하는 마음이지요. 셋째는 크게 가엾게 여기는 마음(大悲心), 즉 한 사람의 중생도 버림이 없이 고통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나는 신도들에게 늘 말합니다.

현대불교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하려면 남을 위하는 이타심과 자비를 가져야 한다. 이사무애 사사무애 원융무애의 도리로 동사섭을 해야 하고 차별을 두지 말아라. 불자들이 남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심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佛法)이라는 진리에 젖어들어 마침내 자기자신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원을 세워 행한다는 것은 또 남을 도와 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요. '원(願)'은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가령 농사가 잘 되도록 마을제를 열어 빈다거나 또는 자식을 위해 비는 어머니의 기원 등은 그것이 비록 성취된다 하더라도 극히 유한적이고 일시적인 즐거움에 그칠 따름입니다. 더구나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나 돈벌이가 잘 되도록 소원하는 데 그친다면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내 나이 80이 가까워 몸은 거동이 힘들지만 조석으로 〈고왕경〉을 독송하고 〈능엄경〉도 독송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사이신 대륜스님은 기도에 아주 철저하셨던 분이예요.

신심에 있어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였어요. 새벽에 일어나 예불모시고 기도에 들어가면 6시가 넘어서야 끝

“자비는 순수한 정에서 나오는 생명체 발심하고 서원하고 실천하면 곧 보살”

니다. 자비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이른 바 불염오애(不染汚愛)라 표현되는 순수한 정에서 우러나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만 자비의 세계에서는 사랑하고 말고 할 원수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을 세워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다짐이고 실천이지요. 곧 자비의 실천입니다. 발심하고 발원하더라도 그 마음에 반드시 자비의 실천이 따르지 않고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을 세워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바로 신심을 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신심을 내느냐. 원효스님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설명해 주셨어요.

첫째는 곧은 마음(直心)을 일으킴입니다. 성내고 자기만 알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부처님제자라며 절에 아무리 다녀도 헛 거예요. 책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전에 벌써 민주주의를 주창하신 분이에요. 평등한 성품은 귀천이 없어 거지나 대통령이나 다 똑같이 성불할 수 있는 부처씨앗을 가지고 있어 열심히 수행한다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니 발원했으면 실천해야 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근본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이 세상 모든 사물의 근본은 참되고 한결같다는 사실을 믿고 즐겨 그와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원효스님은 "신심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신심은 성숙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원하고 발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발내셨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서원을 세워 지성으로 하세요. 법회때 늘 불자들은 사홍서원을 하지요. 사홍서원을 앵무새처럼 그냥 따라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 뜻을 잘 새겨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는 남을 이롭게 하겠다는 원입니다. 마치 술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을 깨우듯, 즉 각성하지 못한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고 또 가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고야 말겠다는 숭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바의 고통에서 허덕이는 저 가이없는 중생 모두를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게 하겠다는 큰 뜻이지요. 두번째인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번뇌망상을 남김없이 끊어서 저 무량한 법의 바다로 들겠다는 서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번뇌 아닌 것이 없다 할만큼 온갖 번뇌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저변에는 귀중한 불성이 잠겨있어서 그것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계기만 마련된다면 보리 곧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불성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 첫 단계는 바로 번뇌를 끊는데서 얻어집니다. 그 많은 번뇌를 남김없이 끊어버림은 무량한 법의 바다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지요.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는 깨달음의 경지에 들기 위해서는 먼저 법의 문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안에 갈무리되어 있는 온갖 보배도 이 입구를 통하지 않으면 볼 수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불교의 세계에 들 수 있는 문은 바로 부처님 법문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위없는 대도라 할 지라고 힘써 배우고 닦지 않으면 그것을 보지 못하여 이룰 수는 더더욱 없는 노릇이지요. 부처님의 지혜는 광대무변하여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여 그 깨닫고 행하는 바가 완전하고 원만하기 때문에 각행원만이라고 하는데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와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는 서원은 부처님의 교법에 들어 힘써 배운 바른 도리 이루어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롭게 하자는 것이지요.

요즘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일수록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동체대비의 마음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교가 이땅에 전래된지 1600년 동안 민족과 더불어 키워온 자비의 나무가 지금은 비실비실 시들어 가지나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비는 어떠한 한계도 없이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불교의 진리, 대승의 수레가 멈추지 않고 굴러갈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지요.

세상이 각박할 수록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사회를 아름답고 원만하게 만들어 갑시다.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사람들의 욕심 또한 무한정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대승의 보살이 되고 수레가 되어 연화정토로 일구어 나가는데 온 불자들이 앞장 서야 합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나와 경전 62

지장십륜경

운 곡
태고종 중앙포교원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결집하여 이루어진 것이 경전이라면 거기에는 교리적으로 천심(淺沈)이나 우열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경전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읽는 사람에 따라 이해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자기가 이해한 것을 기준 삼아서 교리적 우열이나 심천을 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석존께서는 45년 동안 팔만사천 법문을 설하심에 있어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수기설법을 하셨으며, 여래의 교학승들이 교상판석을 했던 것이다.

필자가 〈지장십륜경〉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근본불교에서 중생들의 윤회전생이나 인과응보를 설명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업사상의 대승적 전개를 살펴보기 위해 여러 경전을 찾아 보던 과정에서다.

무불시대(無佛時代)인 오탁악세에 비유했으며, 난행고행을 하면서 6바라밀을 닦아 왕업의 10가지 덕상을 갖춘 왕자가 왕위에 올라 그 나라 백성들을 모두 편안하고 이익되게 한 것을 10선업도와 6바라밀의 실천을 통하여 중생들의 근기를 성숙시켜 그들을 안락하고 이익되게 하는 것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다.

'무의행품'에서는 천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범천이 어떻게 삼매를 닦으면 되는냐는 물음에 대하여 10가지의 악행을 말씀하시고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따르게 되면 선정을 이룰 수 없으며, 출가한 구도자에 대해서는 10가지의 수승한 생각을 지녀야 되고, 오탁악세에는 10가지 악륜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유의행품'에서는 10가지 무의행을 행하게 되면 6도윤회함에 있어서 인도(人道)에 태어나기 어려우며, 10악업

10선업·10무의행의 인과 설명 오탁의 세상 바로 사는 길 제시

이 경의 갖추어진 이름은 〈대승대집지장십륜경〉인데 줄여서 〈지장십륜경〉 또는 〈십륜경〉이라고 부른다. 대정신수대장경에서는 권13에 등재되어 있으며, 당나라때 현장법사가 한역한 것으로 서품, 십륜품, 무의행품, 유의행품, 참회품, 선업도품, 복전상품, 획익촉류품 등 8품 10권으로 되어 있다.

'서품'의 내용은 이렇다. 부처님께서 가라제야산에서 〈대방등대집월장경〉 설법을 마쳤을 때, 모여있던 대중들의 양쪽 손바닥에 여의주가 들려져 있으며, 그 여의주에서는 광명을 나투어 항하사와 같이 수많은 불국토를 모두 비추어주고 있었다. 무구생이라는 제석천이 왜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고 묻자 부처님은 "무량아승지겁동안 오탁악세에서 중생들의 근기를 성숙시키고 제도해 온 지장이라는 보살마하살이 지금 수많은 보살들과 더불어 이곳에 와서 나에게 예배드리고 공양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이며, 이 모든 것은 지장보살이 신통력을 나투어 변화시킨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십륜품'에서는 혼란에 빠진 나라의 백성들이 불안에 떨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사회악이 만연하게 된 것을 을 지으면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날 수 있는 종자가 끊어지니 •10종의 유의행법을 행해서 불퇴전의 종자를 심을 것을 권하고 있다.

'참회품'에서는 악업에 의한 과보로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중생들이 무외열반에 들기 위해서는 참괴심을 내어서 업장을 발로참회(發露懺悔) 하도록 하고 정로법인(正路法忍)을 획득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설명해 놓았다.

'선업도품'에서는 10선업도를 가리켜 보살의 10륜이라 했으며, 10선업도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익과 인과에 대해서 설명했다. '복전상품'에서는 6바라밀과 선교방편, 그리고 대자대비를 무주상 무주심으로 행하면 이것이 대갑주륜(大甲胄輪)이 되어 삼악도에 나아가는 것을 방호(防護)하여 대복전을 이룬다고 설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현실은 전도된 가치관에 따른 사회혼란이 일고 있는 등 가히 오탁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 경전의 일독을 권하는 이유도 새로운 마음으로 불국토를 건설해 보자는 생각에서다.

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

이계진 아나운서가 우리절 홍보 보좌관!

우리절 우리스님
방송시간
(50분간 1회본방 3회 재방)
매주 화요일
09:10~10:00
13:25~14:15
22:00~22:50
매주 일요일
18:40~19:30

" 불교텔레비전 '우리절 우리스님'에 출연하길 참 잘했어요."
언제봐도 믿음직한 불자 아나운서 이계진씨가 우리절 자랑에 발벗고 나섰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가는 프로 '우리절 우리스님'에 나가 풀어놔보세요.
가슴속은 시원해지고 어깨는 으쓱해진답니다.

* 출연문의 : 불교TV 영상사업부 02)3270-3368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tn
불교 TV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